

獨대통령과 함께 訪韓한 한국계 소녀 피아니스트

카롤리네 피셔양

『어머니 나라인 한국에서 정식 독주회를 갖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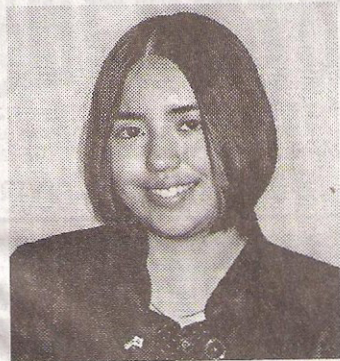
방한중인 로만 헤어초크 독일 대통령의 공식방문단 중 가장 나이 어린 카롤리네 피셔(14)양은 한국계 독일인 피아니스트다. 이번 방문단은 「뉴아트 색소폰 사중주단」과 함께 음악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16일 열린 「독일 대통령 방한 기념연주회」에선 멘델스존의 「룬도 카프리치오」와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멋지게 연주했다. 『지난 5월 헤어초크 대통령 부인 초청으로 대

통령 관저인 벨레위궁에서 독주회를 가진 게 인연이 돼 이번 방문단에 포함됐어요.』

피셔양과 독일의 인연은 이번에 함께 고국을 찾은 어머니 화선 피셔(50·한국명 김화선)씨로부터 시작됐다. 화선씨가 지난 70년 간호사로 독일로 건너가 독일 남편을 만난 것. 피셔양의 피아노 실력은 현지에서 「천재소녀 피아니스트」로 통할 만큼 수준급이다.

여섯살 때인 90년부터 독일 청소년 음악제에 출전해 다섯 차례나 피아노 부문 1등을 했고, 94년엔 베를린의 슈타인웨이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했다. 9살 때부터 베를린 예



공식수행단중 최연소

어제 기념연주회 가져

슬대 부속 음악원에서 수학했으며, 지금은 베를린 바하 김나지움에 다니면서 한스 아이슬러 음대 음악수업을 따로 받고 있다.

잠깐 동안의 한국 체류가 아쉽다는 그는 19일 헤어초크 대통령 일행과 함께 몽골로 떠난다. <朴淳旭기자·swpark@chosun.com>